

# 게슈탈트 심리학에 나타난 예술성 연구

미술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rtistry Using Gestalt Morphological Psychology

focusing on the analysis of works of art

주 저 자 : 김영진 (Kim, Young Jin)

개인연구자

ppprint@naver.com

## Abstract

This study begin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estalt psychology and artistic expressi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how the principles of proximity, closure, and similarity influence both the artist's creative process and the viewer's visual perception. The aim is to explore the creative potential of visual and cognitive experiences in artworks through the lens of Gestalt theory. To this end, the research systematically analyzes artworks based on Gestalt principles and identifies recurring visual pattern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rtists applying Gestalt principles dismantled the conventional boundaries between form and background, inducing impactful visual experiences. Second, the use of impossible structures and distorted perspectives disrupted the viewer's logical perception. Third, the principles of closure and continuity led audiences to perceive incomplete images as whole forms. Fourth, illogical juxtapositions and symbolic imagery opened up multiple interpretive possibilities. Fifth, intentional perceptual distortions encouraged viewers to transcend established cognitive frameworks. In conclusion, the application of Gestalt principles in artistic creation suggests the potential for achieving visual hegemony and advancing creative expression.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value of integrating Gestalt psychology into both the analysis and practice of art, offering new directions for future artistic inquiry and appreciation.

## Keyword

Gestalt Morphological Psychology(게슈탈트 심리학), Convergence(컨버전스), Artistry(예술성),

## 요약

본 연구는 게슈탈트 심리학과 예술성 간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게슈탈트의 근접성, 폐쇄성, 유사성이 예술가의 창작 과정 및 감상자의 시각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예술 작품에서 시각적·인지적 경험의 창의성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게슈탈트 심리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예술 작품을 분석하고 공통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게슈탈트를 적용한 예술가들은 형태와 배경의 경계를 허물며 강렬한 시각적 경험을 유도하였다. 둘째, 불가능한 구조와 왜곡된 원근법은 감상자의 시각 논리를 교란하였다. 셋째, 폐쇄성과 연속성은 불완전한 이미지를 완전한 형태로 인식하게 하였다. 넷째, 비논리적 결합과 상징적 이미지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다섯째, 지각 왜곡을 통해 인지의 틀을 확장시켰다. 결론적으로, 게슈탈트 원리의 예술 창작 적용은 시각적 헤게모니 확보와 창의적 표현 가능성을 제시하며, 향후 예술 분석과 창작에서 통합적 활용이 기대된다.

## 목차

### 1. 서론

### 2. 게슈탈트 심리학과 예술성

- 2-1. 베르트하이머의 형태심리학
- 2-2. 아른하임의 예술심리학 이론

### 3. 게슈탈트 심리학을 적용한 예술 작품 분석

- 3-1. 근접성(Proximity)과 예술성
- 3-2. 폐쇄성(Closure)과 예술성
- 3-3. 유사성(Similarity)과 예술성

### 4. 결론

### 참고문헌

## 1. 서론

게슈탈트 심리학은 1910년대 독일에서 막스 베르트하이머(Max Wertheimer), 볼프강 쾰러(Wolfgang Kohler), 쿠르트 코프카(Kurt Koffka)에 의해 제안된 이론으로, 인간이 개별 자극의 집합보다는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구조나 패턴으로 세상을 인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이론은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합보다 크다'는 핵심 명제를 기반으로, 인간이 환경을 지각할 때 개별 감각적 요소를 단순히 나열된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조화된 전체로 조직화하여 의미를 형성한다는 인지적 원리를 제시한다.

게슈탈트 심리학의 핵심은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라는 개념에 있으며, 이는 인간이 환경을 인식할 때 감각적 요소들을 단순히 나열된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합하여 구조화된 전체로 파악한다는 사고방식과 연결된다. 이러한 지각 원리는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폐쇄성', '형태와 배경', '대칭성' 등의 법칙으로 설명되며, 사람들이 시각적 자극을 통해 패턴을 인식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을 구체화한다. 이에 따라 게슈탈트 심리학은 문화, 예술, 생활 방식, 건축,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었으며, 다수의 연구를 통해 그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예술 분야, 특히 미술과 디자인에서는 명확한 구조를 가진 작품뿐 아니라 기이하고 불규칙한 형태와 패턴의 작품들도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일반적으로 명료한 해석을 제공하지 않지만, 감상자는 게슈탈트적 인식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의미를 찾아내려 한다. 이는 감상자가 시각적 요소 간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통합하고, 이를 통해 작품의 내재된 메시지와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과 깊이 관련된다<sup>1)</sup>. 또한 디자인 분야에서도 게슈탈트 원칙들은 복잡한 시각 정보를 직관적이고 명료하게 구조화하여 사용자 경험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존의 게슈탈트 심리학 관련 연구는 주로 시각적 패턴<sup>2)</sup>이나 디자인 영역<sup>3)</sup>에 국한된 경향

이 있어, 기이하고 불규칙한 형태를 가진 현대 미술 작품의 감상 과정에 이를 적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현대 미술 작품의 복잡한 형태와 상징이 어떻게 인간의 지각적 인지 과정을 통해 통합적인 의미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형태심리학적 관점에서 작품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예술적 표현이 지각적 인지 과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 2. 게슈탈트 심리학과 예술성

1910년대에 독일에서는 게슈탈트 운동(Gestalt movement)이 시작되었고, 그 후 약 25년 동안 집중적 실험과 발전이 계속되었다. 이 이론은 시지각, 기억과 연상, 사고와 학습, 사회 심리학, 예술 심리학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며 인간의 인지 작용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시도하였다. 특히 형태 지각에 관한 게슈탈트 이론은, 지각의 구성 문제에서 출발하여 지각 현상 전반과 관련된 일련의 실험과 이론적 시도로 확장되었다.

게슈탈트(Gestalt) 이론은 흔히 '형태심리학'이라고 불리며, Gestalt는 형태, 형상, 모습 등을 뜻하지만 단순한 형(形) 즉, Shape이나 Form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사물이 배치되는 방식을 나타내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sup>4)</sup> 원리를 설명하는 학문이다. 다

1) Lindauer, M. S. In M. H. Bornstein & L. R. Henderson Eds., 'Psychology and art', Developmental psychology: An advanced textbook 3rd ed., 1990. pp. 807-836

2) Kim, H. J., & Hwang, S. H., 'A study on visual creativity in brand logo design: Comparative analysis of AI-based and visual play-based logo design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Conference, 2023, pp.58-63.

3) Ha, Y. J., & Kim, J. S., 'A study on UI design and user satisfaction of delivery apps based on Gestalt psychology: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Korea's Baemin and China's Meituan delivery apps',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26(1), 2025, pp.453-469.

4) Hwang, H. J. 'Problem solving and insight from the perspective of Gestalt', Educational Development, (95),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al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1995, pp.93-95

시 말해, 인간이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단순한 감각의 집합이 아닌, 지각 속에서 형태화된 조직적 전체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설명하는 학문이다. 이 이론은 인간의 지각이 언제나 형태 속에서 조직된다고 전제하며, 이러한 원리는 시지각을 통한 대상 인식과 그 속성, 구조적 법칙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다.

게슈탈트 심리학은 인간이 개별 요소가 아니라 구조화된 전체를 인식한다는 이론이다. 이 심리학의 기초를 마련한 베르트하이머의 형태심리학은 인간의 지각이 어떻게 개별 요소들을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조직화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아른하임의 예술심리학은 베르트하이머의 이러한 형태심리학적 원리를 예술적 맥락에서 구체화하여, 예술 작품의 시각적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하나의 미적 전체를 이루는지 분석하였다. 즉, 베르트하이머가 형태심리학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 이를 아른하임이 예술심리학으로 구체화하였다.

## 2-1. 베르트하이머의 형태심리학

형태심리학(Gestalt Psychology)은 1910년대 독일에서 막스 베르트하이머(Max Wertheimer)에 의해 이론적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이후 약 25년 동안 심도 깊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발전하였다. 베르트하이머는 인간이 어떤 대상을 인지할 때 개별적인 감각의 집합이 아니라 구조화된 전체로 조직하여 받아들인다고 주장했다<sup>5)</sup>. 즉, 인간의 지각은 항상 조직된 형태 속에서 일어나며, 개별 요소가 아닌 전체적 구조를 우선하여 인식하는 것이다.

베르트하이머가 제안한 형태심리학의 주요 개념은 '전경(figure)'과 '배경(ground)'이다. 전경은 형태가 명확하고 의미가 분명하여 시각적 중심을 이루는 반면, 배경은 형태가 명확하지 않고 주변 환경으로 인식되는 속성을 가진다. 그는 전경과 배경을 구분하는 법칙으로 근접성, 유사성, 폐쇄성(완결성) 등을 제시했다<sup>6)</sup>.

근접성 원리는 서로 가까이 있는 요소들이 하나의 집단이나 패턴으로 지각되는 것을 설명하며, 이는 공간적, 시간적 인접성에 따라 시각적 자극을 묶어 지각하는 인간 인지의 기본적인 성향을 나타낸다<sup>7)</sup>.

5) 앞의 각주 참조

6) Koffka, K., 'Principles of Gestalt Psychology', New York, Harcourt, Brace, 1935

7) Wertheimer, M., 'Untersuchungen zur Lehre von der

유사성은 형태, 크기, 색채, 질감 등 유사한 속성을 가진 요소들이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의미하며, 전체적 구조를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폐쇄성 원리는 윤곽이 불완전하거나 점선 등으로 표현된 형태라도 완전한 형태로 지각된다는 법칙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시각적 자극을 스스로 보완하여 의미 있는 전체로 인식하려는 경향을 갖는다<sup>8)</sup>.

이러한 베르트하이머의 형태심리학은 예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으며, 이후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에 의해 시지각과 예술적 맥락에서 더욱 확장되었다.

## 2-2. 아른하임의 예술심리학 이론

루돌프 아른하임은 형태심리학을 예술의 시각적 지각과 관련하여 심화시키고 이를 예술심리학으로 발전시켰다. 아른하임은 인간이 사물을 지각할 때 단순히 형태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조와 형태의 기능성을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이해하는 복합적 과정이라고 보았다<sup>9)</sup>.

아른하임은 예술 작품이 개별 요소의 단순한 합 이상의 통합적 힘을 지닌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기본 형태(fundamental form)'로 표현하였다. 이는 관찰자의 시지각 체계가 작품의 패턴을 자동적으로 전경과 배경으로 분리하여 인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sup>10)</sup>. 대표적인 예로 '루빈의 잔' 착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관찰자의 시각적 조건에 따라 잔과 배경으로 인식되는 영역이 상호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sup>11)</sup>.

아른하임의 시각이론은 균형, 형, 형태, 공간, 색채, 운동, 긴장 및 표현 등 다양한 시지각적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예술 작품에서 통합적이고 조직적인 의미를 생성한다고 설명한다<sup>12)</sup>. 그는 이러한 시각적 구조

Gestalt II', Psychologische Forschung, 4, 1923, pp. 301-350

8) 앞의 각주 참조

9) Arnheim, R., 'Art and Visual Perception: A Psychology of the Creative Eye (New vers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10) Solso, R. L., Shin, H. J., & Yoo, S. W., 'Visual psychology', Sigma Press, 2000, p.85

11) Suminaomi, Kim, H. S., & Ocheonhak Station. 'Brother's idea', Book Publishing Changmi, 1994, pp.13-14

가 감상자의 감정과 의미를 직관적으로 자극하고 전달하는 예술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형태심리학은 베르트하이머가 창시한 기초적인 지각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아른하임에 의해 예술심리학으로 확장됨으로써 시각 예술의 구조와 표현 방식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 3. 게슈탈트 심리학을 적용한 예술 작품 분석

게슈탈트 심리학은 인간이 세상을 개별적 요소들의 단순한 집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조직화한 구조로 지각하려는 경향을 연구하는 심리학 분야이다. 인간은 불완전하거나 혼란스러운 감각 자극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자기 조직화를 통해 규칙성과 구조를 찾아내고자 하며, 이는 인간 인지 작용의 근본적인 특성으로 간주한다.

이 심리학 이론은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폐쇄성, 전경과 배경의 분리 등 다양한 지각 원리를 통해, 인간이 감각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의미 있는 전체를 구성하려는지 설명한다. 이러한 원리는 인간의 뇌가 외부 세계를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구조화하고 통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게슈탈트 법칙에 따르면, 점, 선, 면 등 시각적 요소들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지각 작용을 통해 상호 관계 속에서 조직화한다. 이러한 조직화는 단지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역학적인 양상으로도 표현된다. 아른하임(Rudolf Arnheim)은 지각이 단순히 정적인 형태를 인식하는 과정을 넘어서, 방향성과 긴장을 지닌 역동적인 에너지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모든 지각은 역동적인 것이며, 이는 형태가 방향성을 가진 긴장에 의해 점유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sup>13)</sup>

따라서, 게슈탈트 심리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미술작품 분석은 예술과 심리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 접근으로서 중요한 학문적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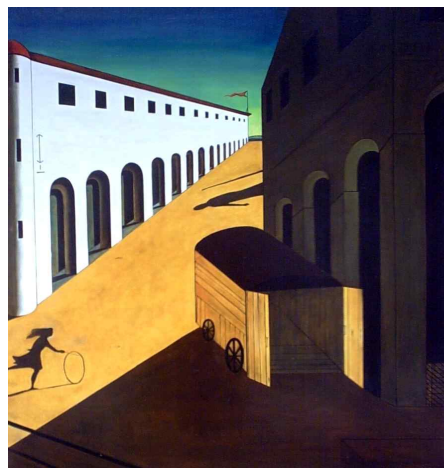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게슈탈트 원리에 부합하는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시각적 불규칙성과 상징성을 심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감상자가 작품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반응과 인지 구조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인간의 무의식적 인지 경향과 시각적 정보 처리 방식에 관한 심리학적 탐구를 예술적 표현과 연결함으로써, 게슈탈트 심리학과 예술 간의 융합을 도모하는 학제 간 연구로 확장될 수 있다. 예술 작품 속 형태적 구성 원리를 게슈탈트 관점에서 분석하는 작업은, 감상자가 단순한 감각의 수용자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 3-1. 근접성(Proximity)과 예술성

##### 3-1-1. Giorgio de Chirico, 〈Mystery and melancholy of a street〉

지오르조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는 그의 작품에서 게슈탈트의 근접성(Proximity) 원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함으로써 감상자에게 혼란과 불안을 유발한다. 근접성의 원리는 인간의 인지 체계가 물리적으로 가까이 배치된 대상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인식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된다. 키리코는 이러한 인지적 특성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거나 방해함으로써, 감상자에게 낯선 공간감과 심리적 불안정을 유도하는 독특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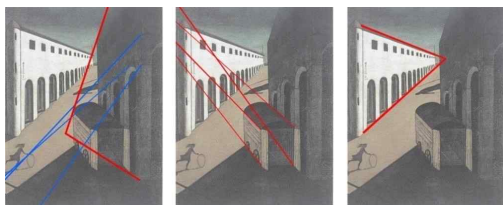


[그림 1] Giorgio de Chirico, 〈Mystery and melancholy of a street〉, 1914, 유화, 크기(85×69cm)

12) 앞의 각주 10) 참조

13) Arnheim, R., 'Art and Visual Perception: A Psychology of the Creative Eye (New vers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p.13

키리코의 작품 <Mystery and Melancholy of a Street>는 게슈탈트 심리학의 근접성 원리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특징을 지닌다. 근접성 원리는 가까이 위치한 시각 요소들이 자동적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인식된다는 게슈탈트 심리학의 지각 원리 중 하나이다. 그러나 키리코는 이 원리를 정교하게 조작하여, 실제 물리적 근접성과 감상자가 느끼는 심리적 근접성을 교란한다.



[그림 2] Giorgio de Chirico, <Mystery and melancholy of a street>의 그림 분석

먼저, <Mystery and melancholy of a street>의 그림분석을 보면, 작품 속 건물과 화물차는 물리적으로 가깝게 배치되어 있지만, 극단적인 원근법과 소실점의 왜곡으로 인해 두 요소 간의 공간적 관계가 모호해진다. 이러한 왜곡된 표현은 감상자로 하여금 개별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묶어서 지각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또한 그림자의 과장된 표현과 대비되는 크기의 설정은 실제 거리감을 불분명하게 하여, 가까이 있는 요소들이 하나의 안정된 패턴으로 묶이는 것을 방해한다. 게슈탈트 심리학이 설명하는 근접성은 일반적으로 시각적 안정을 가져오나, 키리코는 의도적으로 그 법칙을 거스름으로써 시각적 불안정성과 심리적 긴장을 만들어낸다. 감상자는 개별 시각 요소들이 물리적 거리상으로는 가까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왜곡된 원근법과 명암 대비, 착시 효과로 인해 시각적 요소들 간의 통합된 인식을 형성하지 못한다. 이러한 키리코의 전략적 구도 설정은 감상자의 지각 체계를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하여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공간감을 체험하게 만든다. 즉, 근접성 원리를 정교하게 전복하고 조작함으로써 작품의 미학적 특징인 미스터리와 우울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 3-1-2. Giorgio de Chirico, <The Square>

<광장, The Square>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게슈탈트 심리학의 근접성 원리를 의도적으로 교란하고

왜곡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다. 근접성 원리는 일반적으로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시각적 요소들이 자동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형태나 그룹으로 지각되는 경향을 말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원리를 방해하여, 감상자가 형태와 공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과 배경의 명백한 단절과 과장된 원근법의 사용은 감상자가 공간적 관계를 안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인물이나 사물들이 실제 크기나 거리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축소되거나 확대된 상태로 표현되어 있어, 이는 근접성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각 패턴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왜곡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감상자는 가까이 배치된 요소들이 실제로는 시각적으로 분리된 것처럼 느끼게 되어, 공간적 불확실성과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키리코는 사물들 간의 물리적 근접성을 유지하면서도 시각적 연결감을 교묘히 차단하거나 방해함으로써 근접성 원리의 기대 효과를 무력화시킨다. 이는 일반적인 지각 과정에서 기대되는 형태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의도적으로 붕괴시켜, 관람자로 하여금 시각적 긴장감과 불안정성을 느끼게 하는 전략으로 작용한다. 결국, 키리코는 근접성 원리를 뒤집어 사용함으로써 감상자가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독특한 심리적 경험을 창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림 3] Giorgio de Chirico, <The Square>, 1913, 유화, 크기(51.5×75.5cm),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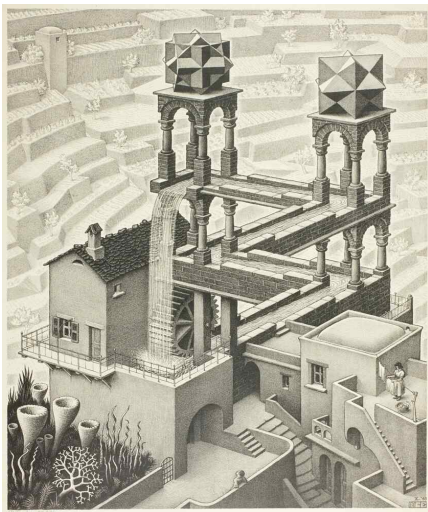
### 3-2. 폐쇄성(Closure)과 예술성

#### 3-2-1. M.C. 에셔(M.C. Escher)작품 분석

네덜란드 화가 M.C. 에셔(M.C. Escher)는 당대의

수학자들과 교류하며 기하학적 패턴과 불가능한 형태를 통해 시각적 착각을 극대화한 작품을 창작했다. 그의 작품 <Waterfall>과 <All is Connected>는 계슈탈트 심리학의 폐쇄성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감상자가 시각적 요소들을 자동으로 완전한 형태로 보완하는 심리적 작용을 극대화하는 특징을 가진다.

먼저, <Waterfall>에서 에서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구조를 통해 시각적 착시를 창출한다. 작품에 표현된 계단식 수로는 각 경사가 독립적이고 서로 모순된 구조를 지니지만, 감상자의 인지 체계는 폐쇄성 원리에 따라 이 모순된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연결된 전체로 재구성한다. 물이 끊임없이 순환하며 내려가는 듯한 착시는 개별적으로 불완전하거나 모순적인 형태를 지각적·심리적으로 보완하려는 인간의 자동적 성향에서 비롯된다. 이 과정에서 감상자는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형태를 논리적이고 일관된 전체로 인지하며, 지각상의 충동을 무의식적으로 극복하는 폐쇄성의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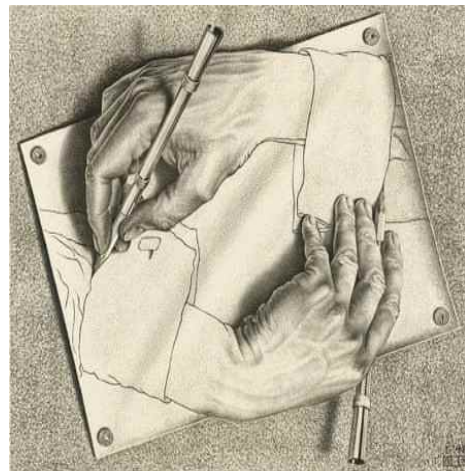


[그림 4] M.C. Escher <Waterfall>, 1961, 리소그래피, 크기(38×30cm), Escher in het Paleis<sup>14)</sup>

<All is Connected>에서도 폐쇄성 원리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에서는 입체적 명암으로 표현된 손과 평면적으로 표현된 손을 교차 배치함으로써, 2차원과 3차원의 경계를 교묘하게 혼동시킨다. 이 형상들

은 각각 독립된 요소로서는 완결되지 않은 채 모순적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감상자는 무의식적으로 그 간극을 메우고 연결시켜 전체적인 의미를 형성하려는 심리적 충동을 경험한다. 폐쇄성 원리에 의해 개별 요소의 단절이나 불완전함이 오히려 감상자의 적극적인 인지적 참여를 유발하고, 불안정한 형태를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재구성하도록 촉진한다.

에서의 이 두 작품에서 폐쇄성 원리는 감상자의 인지적 개입을 유도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한다. 감상자는 시각적으로 불완전하거나 모순된 요소들을 자발적으로 보완하고 통합함으로써 심리적 긴장과 동시에 지각적 환영의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에서는 이러한 폐쇄성 원리를 통해 형태의 완결성과 지각의 모순 사이에서 감상자의 심리적 상호작용을 유도하며, 작품의 미학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림 5] M.C. Escher, <All is Connected>, 1938, 리소그래프, 크기(47.6×47.6cm), 레딩 퍼블릭 뮤지엄의 컬렉션<sup>15)</sup>

### 3-2-2. 달리(Salvador Dalí)작품 분석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살바도르 달리의 회화는 비이성적 세계와 무의식의 심상이 만나는 지점에서, 감상자의 지각적 구조를 교란하고 재구성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폐쇄성 원리를 활용한다. 폐쇄성은 그의 작품에서 감상자가 분절된 이미지들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전체

14) Art Institute Chicago, 'M.C. Escher, Waterfall', (2025.05.23.)  
<https://www.artic.edu/artworks/118144/waterfall>

15) Artsy, 'M.C. Escher, Drawing Hands', (2025.05.23.)  
<https://www.artsy.net/article/artsy-editorial-mc-escher-transfixed-mind-bending-works>

를 재구성하고 해석하도록 유도하는 핵심 심리 기제로 작용한다.

먼저, <구체의 갈라테(Galatea of the Spheres)>는 폐쇄성 원리를 극대화하여 개별적인 구체들이 하나의 인물 형상으로 지각되도록 유도한다. 각각의 구체는 개별적 요소로 존재하지만, 감상자의 지각은 자동적으로 이 단편들을 연결하고 완결된 형태의 인물을 구성해낸다. 감상자는 의식적으로 조각난 형태를 통합하여 결손된 부분을 보완하려는 심리적 충동을 경험하며, 이는 폐쇄성 원리가 인간 지각에서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림 6] Salvador Dalí <Galatea of the Spheres>, 1952, 유화, 스페인 살바도르 달리 박물관<sup>16)</sup>

<위대한 자위행위자(The Great Masturbator)>는 더욱 급진적으로 폐쇄성을 활용한다. 작품은 여성의 상반신과 남성의 하반신 같은 구체적이고 익숙한 이미지가 불완전하고 기묘한 형태와 혼합되어 있다. 이러한 미완의 형태는 감상자로 하여금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완결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하게 만든다. 그러나 감상자가 시도할수록 모호하고 기이한 형태의 불연속성으로 인해 인지적 혼란과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 폐쇄성은 여기에서 감상자에게 형태를 완성하려는 강박적인 지각적 욕구를 자극하며, 결과적으로 형태적 불안정성과 긴장감을 높인다.



[그림 7] Salvador Dalí, <The Great Masturbator>, 1929, 유화, 크기(51×41cm), Museo Nacional Centro de Arte Reina Sofía

<주변을 날아다니는 한 마리 꿀벌에 의해 야기된 꿈(Dream Caused by the Flight of a Bee Around a Pomegranate a Second Before Awakening)>에서는 무관한 이미지들의 자유로운 병치를 통해 폐쇄성의 심리적 효과를 더욱 강조한다. 작품 속에서 무관한 이미지들의 병치는 명확한 논리나 맥락 없이 불연속적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감상자는 본능적으로 이 불연속적이고 의미 없는 요소들을 결속시켜 내적으로 완결된 전체를 형성하려는 무의식적 노력을 지속한다. 이로 인해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지각적 혼란과 무의식적 긴장을 느끼게 된다.



[그림 8] Salvador Dalí, <Dream Caused by the Flight of a Bee Around a Pomegranate a Second Before Awakening>, 1944, 유화

16) Arthur, 'Galatea of the Spheres', (2025.05.23.)  
<https://arthur.io/art/salvador-dali/galatea-of-the-spheres>

〈기억의 지속성(The Persistence of Memory)〉에서 폐쇄성은 시간의 개념을 왜곡하는 녹아내리는 시계로 표현된다. 비현실적인 형태의 시계들은 감상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을 지각하면서도, 이를 완결된 형태로 수용하게 만드는 심리적 착시를 일으킨다. 또한 왜곡된 원근법과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공간 구조는 폐쇄성을 통해 여전히 하나의 통합된 장면으로 지각되며, 이는 감상자의 지각 체계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혼란스럽게 한다.



[그림 9] Salvador Dalí, <The Persistence of Memory>, 1931, 유화, 크기( 24×33cm), 뉴욕 현대미술관(Mo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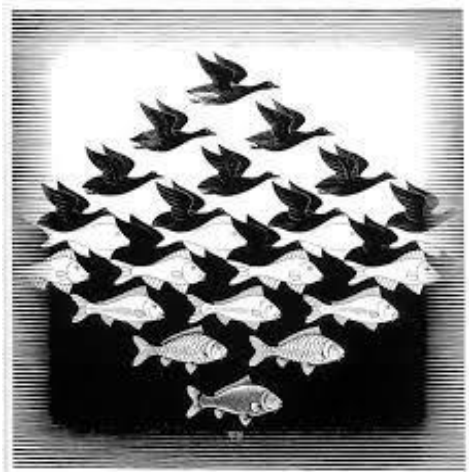
이처럼 달리의 작품들은 폐쇄성 원리를 의도적으로 전복하고 실험적으로 변형하여, 감상자가 지각적 완결성과 무의식적 혼란 사이의 경계를 탐색하도록 유도한다. 폐쇄성은 단순히 형태를 완성하려는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넘어서, 작품과 감상자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구축하는 주요한 예술적 장치로 기능한다.

### 3-3. 유사성(Similarity)과 예술성

#### 3-3-1. M.C. Escher, <하늘과 물: Sky and Water I>

게슈탈트 이론의 ‘유사성’ 원리는 M.C. 에셔의 작품 세계, 특히 패턴의 반복과 기하학적 변형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에셔는 동일한 형태나 색상, 그리고 방향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감상자가 시각적으로 일관된 패턴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곧 감상자가 무의식적으로 유사한 요소들을 그룹화하여 전체적 형태로 지각하게 하는 게슈탈트의 유사성 원리를 역설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먼저, 에셔의 <하늘과 물(Sky and Water I)>은 유사성 원리를 작품의 핵심적인 표현 장치로 삼는다. 흰색 물고기와 검은색 새가 교차하며 배열된 이 작품은 형태와 색상의 반복을 통해 유사한 요소들을 무의식적으로 그룹화하도록 감상자를 유도한다. 에셔는 물고기와 새의 형태를 점진적으로 변형시키면서 형태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만들어, 시각적으로 연속된 구조를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전경과 배경이 서로 뒤바뀌며, 유사성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흐름이 발생한다. 그러나 형태의 점진적 전환으로 인해 감상자는 두 대상 간의 구분에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유사성 원리가 일으킨 자동적 그룹화가 역설적으로 지각적 혼돈을 초래하며, 이를 통해 에셔는 감상자의 인식 구조를 실험적으로 전복한다.



[그림 10] M.C. Escher, <Sky and Water I>, 1938, 목판, 크기( 43.5×43.9cm), National Gallery of Canada<sup>17)</sup>

#### 3-3-2. René Magritte, <인간의 조건: The Human Condition>

르네 마그리트는 시인이자 화가이자 철학자로서, 유사성의 원리를 작품 전반에 걸쳐 철학적 사유와 초현실주의적 표현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그는 유사한 형태나 이미지를 반복적이거나 교묘하게 배치함으로써 감상자의 지각을 교란하고, 감각과 지각 사이의 간극을 탐색하였다. 마그리트의 이러한 표현 방식은 게슈탈트 이

17) Arthive, 'Sky and water I', (2025.05.23.)  
[https://arthive.com/escher/works/200052~Sky\\_and\\_water](https://arthive.com/escher/works/200052~Sky_and_water)

론에서 말하는 ‘유사한 형태의 그룹화’와 ‘전체화’ 경향을 역이용하거나 전복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의 작품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은 유사성 원리를 활용하여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탐색하는 철학적 문제를 제기한다. 마그리트는 창문 앞의 캔버스 속 풍경과 실제 창밖 풍경을 형태적, 색채적으로 유사하게 그려, 두 이미지를 감상자의 시각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연속된 전체로 인식하게 만든다. 유사성의 원리가 작용하여 감상자는 그림과 현실 풍경을 시각적으로 구분하지 못한 채 하나의 장면으로 통합시킨다. 그러나 이는 의도된 착시이며, 감상자는 곧 자신이 지각한 이미지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게 된다. 마그리트는 이를 통해 감상자의 지각 체계가 유사성을 기반으로 얼마나 쉽게 혼동될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지각과 현실의 모호한 관계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도록 유도한다.



[그림 11] René Magritte, <The Human Condition>, 1933, 유화, 크기(100×181cm), 워싱턴 D.C.에 있는 National Gallery of Art 컬렉션<sup>18)</sup>

### 3-3-3. René Magritte, <르 블랑 센: Le blanc seing>

<르 블랑 센(Le blanc seing)>에서는 유사성의 원

18) 위키피디아, 'The Human Condition (Magritte)', (2025.05.23.) [https://en.wikipedia.org/wiki/The\\_Human\\_Condition\\_\(Magritte\)](https://en.wikipedia.org/wiki/The_Human_Condition_(Magritte))

리가 형태의 반복적이고 교묘한 배치를 통해 극대화된다. 이 작품에서 마그리트는 나무 기둥, 인물, 배경 숲의 세로 형태를 반복하여 유사한 패턴을 만들어내고, 의도적으로 이를 어긋나게 조합하여 현실에서 불가능한 구조를 창출한다. 각각의 요소가 개별적으로는 오류 없이 지각되지만, 전체 구조로 보면 모순이 발생하며, 감상자는 지각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유사성을 통해 자동적으로 형태들을 그룹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혼란은, 형태가 부분과 전체 사이에서 어떻게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준다. 마그리트는 유사성 원리를 역설적으로 활용해 감상자의 시각적 인식을 적극적으로 조작하며, 지각적 일관성과 혼돈의 경계를 탐구하게 한다.



[그림 12] René Magritte, <Le blanc seing>, 1965, 유화, 크기(116×89cm), 뉴욕 현대 미술관 소장품<sup>19)</sup>

이와 같이, 에셔와 마그리트는 유사성 원리를 단순한 지각적 현상에서 나아가 감상자의 심리적 참여와 철학적 사유를 이끌어내는 핵심적 예술 장치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감상자는 형태의 반복과 착시 현상에서 비롯된 혼란 속에서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하게 된다.

19) Retorno al bosque, 'El hipnótico bosque de Magritte', (2025.05.23.) <https://www.retornoalbosque.com/el-hipnotico-bosque-de-magritte/>

## 4. 결론

본 연구는 게슈탈트 심리학의 핵심 원리인 근접성(Proximity), 폐쇄성(Closure), 유사성(Similarity)을 중심으로 미술작품의 예술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게슈탈트 심리학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활용한 예술가들은 기존의 시각적 규칙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변형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익숙한 지각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식과 해석의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유도하였다.

우선, 형태와 배경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표현 전략은 감상자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작품 속의 복수 의미와 중첩된 이미지를 동시에 지각하게 만든다. 이는 유사성과 폐쇄성의 원리와 밀접하게 연결되며, 불완전하거나 전환된 형태가 시각적으로 완성되어 인식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감상자는 상식의 붕괴를 경험하며 끊임없이 그 의미를 추론하게 된다.

둘째, 불가능한 구조와 왜곡된 원근법의 사용은 연속성의 원리 및 유사성의 원리와 맞닿아 있다. 시각적인 유사성으로 감상자를 안심시키고, 정교하게 왜곡되게 설계된 형태들을 통해 감상자는 특정 방향이나 흐름을 예측하지만, 그 예측이 어긋나는 순간, 감상자는 공간적 모순과 지각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감상자의 기존 인식 체계를 흔들며, 시각적 상식을 넘어서는 지각의 확장을 야기한다.

셋째, 의도적으로 불완전하게 제시된 형태나 단편적 이미지의 배열은 감상자가 지각의 공백을 스스로 채워 넣도록 유도하며, 이는 폐쇄성과 근접성의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완전한 형상으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은 감상자로 하여금 수동적인 관람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해석자로 작품에 참여하도록 만든다.

넷째,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반복적이거나 규칙적인 패턴의 설정과 그것의 교란은 감상자의 시각적 예측을 조작한다. 이는 감상자의 주의와 해석을 유도하는 동시에, 유사한 이미지 속에 내포된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게 하며, 유사성의 원리가 단순한 시각적 일치 이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마그리트와 에셔의 작품에서처럼, 유사한 형태나 배경이 서로 전도되거나 교차될 때 감상자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다섯째, 비논리적인 이미지 결합과 상징의 도입은 게슈탈트 이론의 주요 원리들과 함께 작용하며, 감상자에게 복합적인 의미를 지각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심리적 불확실성과 해석의 다의성을 발생시키며, 예술 작품이 단순한 재현을 넘어 심리적 탐색의 장이 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게슈탈트 심리학의 핵심 원리들 근접성, 폐쇄성, 유사성이 예술작품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감상자의 지각을 교란하고, 동시에 심화된 인식과 창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지를 조명하였다. 이는 예술작품이 단지 시각적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심리적, 철학적 차원의 인식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게슈탈트 심리학은 단순한 시각적 이론을 넘어서 예술의 창작과 감상 모두에 깊이 있는 해석 도구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예술가에게는 새로운 형식 실험의 가능성을, 감상자에게는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철학적 사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게슈탈트 원리의 보다 다양한 예술 장르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창작자와 감상자 간의 지각적 상호작용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예술과 심리학을 아우르는 통합적 연구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1. Arnheim, R., 'Art and Visual Perception: A Psychology of the Creative Eye (New vers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2. Ha, Y. J., & Kim, J. S., 'A study on UI design and user satisfaction of delivery apps based on Gestalt psychology: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Korea's Baemin and China's Meituan delivery apps',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26(1), 2025
3. Hwang, H. J. 'Problem solving and insight from the perspective of Gestalt', Educational Development, (95),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al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1995
4. Koffka, K., 'Principles of Gestalt Psychology',

New York, Harcourt, Brace, 1935

5. Kim, H. J., & Hwang, S. H., 'A study on visual creativity in brand logo design: Comparative analysis of AI-based and visual play-based logo design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Conference, 2023
6. Lindauer, M. S. In M. H. Bornstein & L. R. Henderson Eds., 'Psychology and art', Developmental psychology: An advanced textbook 3rd ed., 1990
7. Solso, R. L., Shin, H. J., & Yoo, S. W., 'Visual psychology', Sigma Press, 2000
8. Suminaomi, Kim, H. S., & Ocheonhak Station. 'Brother's idea', Book Publishing Changmi, 1994
9. Wertheimer, M., 'Untersuchungen zur Lehre von der Gestalt II', Psychologische Forschung, 4, 1923